



◇80년대 초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던 임권택 감독의 불교영화 '민다라'.



◇문도회와 유족의 반대로 제작이 중단된 영화 '성철'의 촬영 장면.

# 두손 논 영상포교... "불교영화 없다"

문화의 시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불교를 대중에게 전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상포교다. 영상포교가 이렇듯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영상문화가 현대인들의 모든 사고와 양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불교영화의 연원을 살펴 보면, 62년 '원효대사'와 '이차돈'을 필두로 20여편의 불교영화가 제작돼 왔지만 70년대까지는 대부분 교훈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돼 일반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후 80년대 들어서는 임권택 감독의 '민다라'가 대중적인 인기와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불교영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90년대 초반에는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극대영화제

## '달마가 동쪽으로...' 이후 수준작 맥 끊겨 불교왜곡·편하 이유 영화제작에 제동

대상을 수상하며 불교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불교영화가 제작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 이일목 감독의 '카루나'가 제작됐지만,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부족과 작품의 완성도 부족을 불자들의 불심으로 메우려 하다가 참패를 당했다. 이후 지난 98년 박철수 감독이 성철스님의 생애를 영화화하기 위한 영화 '성철'의 제작에 착수했으나 문도회와 유족의 심한 반대로 중도 하차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특히 영화 '성철'의 제작중단은 창작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90년대 중반이후의 특징 가운데 하

는 '리틀부다' '문둔' 등 외국의 불교영화가 국내에 소개됐다는 것이다. 오는 6월에는 월드컵을 소재로 한 티베트 장편 극영화 '컵(CUP)'이 국내에 개봉될 예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차세대형 영상포교다. 그러나 교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영상매체를 상업적이고 천박한 문화로 치부하려는 편견이 존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승들의 세계를 자칫 잘못 표현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불교영화 제작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짙다. 또 포교적인 면만을 강조하다보니 문화적 산업적 산물인 영화

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간섭하고 방해해서 제작의 길을 아예 차단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단 한번의 시도로 완성도 높은 불교영화가 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김태형씨(영화평론가)는 "영화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한 매체다. 그러나 불교영화는 돈버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고, 자연히 제작자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면서 "기존의 소재주의적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영화의 전반적인 구성에 불교의 세계관과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영화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강한 영상매체의 힘을 무시한 채 영상포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다. 따라서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영화인들이 의욕적으로 불교영화를 만들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opia.com)



◇월드컵 축구 경기를 둘러싸고 티베트 불교사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컵(cup)'.

### 미리보는 불교영화 'CUP'

#### 티베트 승려의 천진한 삶 코믹영화... 곳곳에 감동

영화 '컵(CUP)'은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월드컵 경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다루고 있다. 담을 넘어서라도 월드컵 경기를 보겠다는 어린 스님들과 클럽도 종이컵도 아닌 '컵'을 차지하려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노스님간의 갈등과 화해를 코믹한 상황 설정으로 풀어간다. 이 영화의 수입 배급사는 코미디 영화로 분류하고 있지만 티베트승려들의 천진하고 소박한 삶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낸 불교영화로도 볼 수 있다. 마구 웃다보면 티베트 불교사원의 동승처럼 선량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이다. 이 영화는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환승 라마 중

한사람인 키엔츠 노부가 메가폰을 잡아 티베트 스님들이 배우로 출연하고, 티베트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티베트 영화다. 특히 실재로 월드컵에 열광한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그러나 단순히 즐겁고 재미있는 영화만은 아니다.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을 영화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세대간의 갈등을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화해로 이끌어낸다. 우여곡절 끝에 텔레비전을 빌려 놓았지만 막상 경기가 한창일 때 오기엔은 자리를 나와, 텔레비전을 빌릴 때 모자란 돈 대신 저당잡힌 니마 어머니의 시계를 되찾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을 찾아 자신의 방을 샅샅이 뒤진다. 이를 본 게코스님이 돈을 대신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오기엔에게 "샘이 흐르긴 해도 년 훌륭한 스님이 될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영화의 끝무렵에서 펼쳐지는, '적멸에 대한 중요성을 극대화'는 노스님의 법문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6월 10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된다. 이은자 기자

### 5월의 문화인물

## 진·감·선·사

### 음악극 등 행사 다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인물 진감선사의 달을 맞아 관련 공연과 행사들이 잇따라 열린다.

진감국사(眞鑑國師: 774~850)는, 범패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불교 음악의 선구자이자 중국으로부터 차나 무를 들여와 보급한 차문화의 비조로도 꼽힌다. 또한 신라 하대 선종(禪宗)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문화관광부는 조계종과 함께 1~2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음악극 '진감'을 공연하고, 3일에는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14일에는 쌍계사에서 영산대법회를 연다. (02)739-1830 국립극장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진감선사의 달을 맞아 '불교예술의 미 천년회상, 천년상생'을 준비 중이다. 9일 국립극원 예약실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국립극원과 영산재보존회, 승무 이매방씨, 경기명창 이춘희씨 등이 법과와 작법, 승무, 영산회상 등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극원인 광장 한가운데 법주사 팔상전 도형탑을 설치해, 공연 후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탑돌이를 하며 화합의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02)580-3300

## '춤추는 이것은 무엇인가'

### 이은자 춤·화두

#### 3일 부산문화회관 공연

춤이 곧 화두가 되고 수행이 되는 '이은자 춤·화두' 공연이 승속을 넘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춤추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존재의 실체를 찾아 나선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춤 '회향'은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법법은 꿈이며 환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라고 이은자 춤·화두 개개인이 마땅히 이와 같이 불지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 4막 95분의 대서사시로 펼쳐낸다. 특히 시심마, 무, 무아, 미묘원재안상(눈법은 눈 위에 있다) 등을 4개의 화두로 삼아 각 막마다 풀어낼 예정이다. 90년 춤·화두 연구회를 발족한 이교수가 참선을 춤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의 일부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이교수는 춤·화두 연구회 활동 외에도 마을을 담아내는 작업들을 계속하며 '회향'이라 설음 '제행무상' '마하무드라' '산과 물을 기리는 노래' 등의 작품활동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 22가지의 화



◇화두춤을 추고있는 이은자교수

두 작품을 발표한 이은자 교수는 "어려 스님들을 찾아 자문을 구하며 화두를 춤으로 형상화 했다"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과 근원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불교인터넷 TV "연등축제 생중계"

오는 부처님오신날에는 안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연등축제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불교인터넷TV(이하 BIT, 대표 임동민)는 7일 열리는 '연등축제'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동안 교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기로 했다.

BIT는 이번 중계방송을 위해 스튜디오와 현장을 연결하는 이원 생방송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프로그램 기획에 착수했다. 또 인터넷상에서의 원활한 중계를 위해 '드림라인'과 '신비로' 등 대형인터넷 업체들의 서버를 확보해 개

국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생중계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방송될 예정이며, 방송을 원하는 교계사이트에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해 보다 많은 불자네트즌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BIT임동민대표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1300만을 넘어선 시점에서 불교계도 네티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연등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생중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현장스튜디오를 만들어 방송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김주원 기자

#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The Royal Song of Saraha

###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경숙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India My Love

### 내 사랑 인디아

오소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8,000원

Tantra Vision

###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연화 옮김 전4권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하라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소 라즈니쉬가 보내는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나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사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5. 범구경 I	09. 탄트라 더빙은 깨달음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탄트라 秘典 II	06. 범구경 II	10. 심우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남전	22.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03. 탄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간승당	15. 轉. 빈 거울에 담긴 노래 I·미조	19. 법의 연꽃!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04. 탄트라 秘典 IV	08. 빈아심경	12. 허안 연등축제(대서) 강론	16. 마음을 버려라! 입제	20. 轉의 최고봉! 백정과 대주	24. 사랑의 불타!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복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태인출판사**  
달문